

## 애셔스트화현 합작법인 출범, "외국법부터 한국법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사출고 2023.02.03 09:55

존 김-신경식 변호사의 25년 우정이 합작법인 성사로 이어져

2월 들어 외국 로펌들의 한국 상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주자, 새로운 형태의 한국 법률시장 진출이 한층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 둠을 틔운 영국 로펌인 왓슨 팔리 앤 윌리엄스(Watson Farley & Williams, WFW) 서울사무소가 2월 1일 본격적인 업무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하루 뒤인 2월 2일 저녁 서울 강남의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한-외 합작법무법인 1호인 영국의 애셔스트(Ashurst)와 법무법인 화현의 애셔스트화현 합작법무법인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 송무 · 노무 · IP 등 외 한국법 자문도 가능

애셔스트화현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외국법과 국제법에 대한 자문은 물론 송무와 노무, 지식재산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한국법에 대한 자문도 가능한 점이 단독으로 서울에 사무소를 열어 진출한 영미 로펌 등의 여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다른 점이다.

(중략)

애셔스트화현 합작법무법인 출범은 예전부터 가깝게 알고 지내온 존 김과 신경식 대표의 개인적인 친분이 밑바탕이 되어 합작법무법인 성사로 이어졌다고 한다. 수원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변호사가 된 신경식 대표가 검찰에 있을 때인 1998년 뉴헤이븐에 있는 코네티컷주 검찰청에 파견갔을 때 NYU 로스쿨(JD)을 마치고 뉴욕의 Cravath, Swaine & Moore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존 김 변호사의 자동차를 빌려 쓸 정도로 가까웠던,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우정이 합작법무법인 1호를 탄생시킨 것이다.

Ashurst는 1822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호주 로펌과 합병한 200년 역사의 다국적 로펌이다. 파트너만 400명이 넘고 3,6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포진한 변호사 수 기준 세계 14위 규모의 거대 로펌이다. 또 판,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기업법무 전문가 등이 포진한 화현은 기업법, 지식재산권과 기술,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탄탄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신경식 대표와 함께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이봉구, 김태용, 박성열, 하성화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